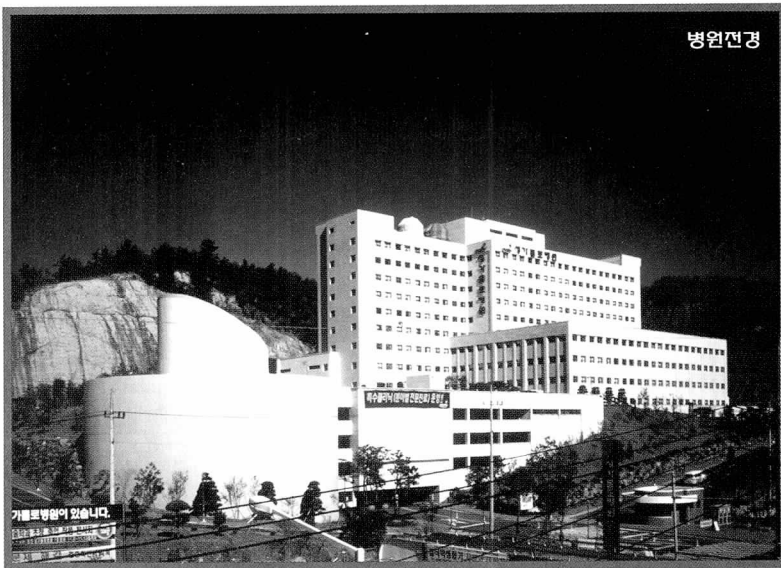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웃의 진정한 쉼터

순천성가롤로병원



차가운 아침 바람을 가르며, 순천행 첫 버스에 몸을 실었다. 5시간 20분, 장시간 버스에 몸을 맡기고 도착한 곳은 순천버스터미널... 어느 시골 도시처럼 작고 아담한 버스터미널이 날 반겨주었다. 목적지인 순천성가롤로병원을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가는 도중 작은 병원들이 눈

에 많이 띄었다. 이 병원인가 싶으면 아니고, 저 병원인가 싶으면 아니고... 세, 네개의 병원을 거친 다음 도착한 순천성가롤로병원을 보는 순간, 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넓은 대지에 신형 건물, 대도시의 대형종합병원의 구조 등등 서울의 대형병원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규모의



병원이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무언가를 묻기 전에 "어디를 찾으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말을 먼저 하면서 도와주는 것이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난 "진절" 그 자체를 맞볼 수 있었다.

23개 진료과 개설 · 700명상의 입원실을 갖춘 호남 최대의 병원으로 자리매김

순천성가롤로병원은 오로지 사랑과 봉사,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 1969년 11월 4일 순천시 장천동 (현 순천시청 아래)에서 의료사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1998년 3월 순천시 조례동 1742번지로 신축이전하여 지방병원으로서는 드물게 규모나 시설, 보유장비 및 의료의 면에서 어느 대학병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대형종

합병원으로 성장했다. 돌산을 깎아 만든 순천성가롤로병원은 26,000평의 대지에 연건평 19,000여 평의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과 내과, 정형외과 등 모두 23개 진료과를 개설하고 700병상의 입원실을 갖춘 호남 최대의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가 떠오르는 집”, “전인치료를 향한 마음”, “하느님을 향한 열렬한 마음” 등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성가롤로병원의 상징이자, 이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향하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슬관절(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유명 · 전국 205개 종합병원 중 제왕절개를 최하위 병원으로 선정

병원현관을 들어서는 모든 방문객들은 맨 처음 깔끔하고 산뜻한 실내 분위기에 병원같지 않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두 번째로는 수녀님들과 직원들의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에 환자가 이곳에 들르면 모든 병마를 퇴치할 수 있을 것 같은 안락함을 느낀다. 병원 내·외부를 막론하고 넓고 쾌적한 환경, 최신 설비, 진료과마다 탁월한 실력을 갖춘 의료진,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막강한 지원부서, MRI, CT, 심혈관 촬영기를 비롯한 최첨단 의료장비 등은 “환자제일주의”를 표방한 순천성가롤로병원의 얼굴이다.

특히 성가롤로병원은 내과와 정형외과 진료가 유명하다. 슬관절(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은 보행이 불편한 환자에게 걸을 수 있는 기쁨을 주고 있는데, 이는 흡사 예수님이 걸을 수 없는 사람을 걷게 만든 것과 같은 참사랑의 의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가롤로병원은 전국 205개 종합병원 중 제왕절개율이 최하위 병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의사 1인당 1실의 연구실 제공 · 2001년 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

성가롤로병원은 21세기형 병원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환자만족을 위한 초전문 진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의사 1인당 1실의 연구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21세기 의료계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통해 의학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7백 병상 모든 입원실의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성가롤로병원은 지금 그 어느 때보



다도 가슴벅찬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의료진을 포함한 6백 여 명의 직원들이 환자중심의 초전문병원을 만들기 위하여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 부서의 TQ(총제적 질관리)를 통하여 환자진료와 간호, 응대에 있어 문제점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절이란 "환자에게 설명을 잘 해 주는 것"

친절교육에 있어 성가롤로병원의 특이한 점은 한 달에 한 번씩 '불친절의 극복사례'를 발표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례발표라는 것이 잘 된 점을 발표하는 것에 비해 성가롤로병원의 불친절 극복사례 발표는 잘 못된 점 속에서 보다 나은 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직원 한 명 한 명의 몸에 부착돼 있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명찰은 방문객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지난 해 성가롤로병원은 월별로 "친절교육 이달의 테마"를 정해 친절교육을 실시했는데 "환자에 대한 8가지 바람직한 자세"는 병원인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다.

-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긍정적인 자세
-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능동적인 자세
-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인 자세

- "기꺼이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적인 자세
- "잘못된 것은 즉시 고치겠습니다"라는 겸허한 자세
- "참 좋은 말씀입니다"라는 수용적인 자세
-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라는 협조적인 자세
- "대단히 고맙습니다"라는 감사의 자세

질병의 진단과 치료차원을 넘어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구현

순천성가롤로병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심장병, 각종 암, 스트레스, 고령사회의 노인들을 위하여 심혈관 센터, 호스피스 병동, 정신과 병동, 노인전문 병동 등 특수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사회적·종교적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사업과와 원목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협조자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성가롤로병원은 가진 것을 나누는다는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병원의 문화공간인 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지역사회에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으며, 환자와 지역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정서함양을 높이기 위하여 비디오 상영, 각종 전시회, 음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질병의 진단과 치료차원을 넘어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박정숙 병원장 인터뷰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움을 최우선으로...

INTERVIEW



온화한 미소, 단아한 자태, 조심스러운 말투.....

한 눈에도 박정숙 원장수녀님의 모습은 상대방을 편안케 했다.

IMF가 터진 직후에 지금의 조례동으로 병원을 옮긴 터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법도 한데, 지난 날의 어려움은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돼 도와준 덕분이라고 박정숙 원장은 직원들 자량에 힘이 말랐다. 간섭이 아닌 직원들 자량에 의해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박정숙 원장은 자량이야말로 최대의 칭찬이라고 말한다. 다음은 박정숙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문] 설립이념 소개

우리 성가롤로병원은 가톨릭정신에 바탕을 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수녀회의

숙원사업인 사회복지 사업을 전개하고자 설립했습니다. 창설자인 안토니오 가보레 신부님이 특별히 환자에게 관심을 가져 설립된 병원만큼 주로 가정간호와 호스피스 등 원목활동과 지역주민의 귀중한 생명을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하는 노인성 질환 및 신생아 치료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꽃처럼 환자를 향해 성심성의껏 치료하는 것을 저희 병원 본분으로 생각합니다.

[문]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의사는 환자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배운대로 하기 보다는 환자 개개인의 사정에 따른 각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점도 중요하겠지만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의사가 환자에겐 더 필요합니다. 또 간호사는 주사를 잘 놓는 것보다는 환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즉시 달려오는 간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실, 수납창구, 경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병원 직원들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언제나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환자에게는 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직원 모두가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 성가롤로병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지

'가진 것을 나눈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병원의 문화공간(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야외시설 등)을 지역사회에 무료로 대여하여 지역의 각 조직 및 단체가 각종 회의, 발표회, 음악회,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병원이 지역사회의 문화창달을 위하여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병원과 지역사회와의 일체성이 아닌 지속성의 관계를 갖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 비공식적으로는 직원 상호간의 인간적인 교류에 관심을 갖도록 수호천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이전을 기준으로 우리 병원 각 부서에서 직원 상호간의 이름을 써 놓은 종이를 무작위로 추천해 자기와 뽑은 직원에게 정성스러운 선물증정과 다음 해 1년 동안 그 직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는 일종의 후견인 제도로 직원 상호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는 역할입니다.

[문] 가장 보람됐던 일은

지난 해 6월, 심혈관 센터를 열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나 뇌수술환자를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동시킬 때 우리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면 살 수 있는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

다. 심혈관 기계가 30억 정도나 되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우리 병원 직원들의 정성과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 주셔서 30억을 기증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심혈관 센터를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문] 21세기 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21세기 병원은 수익성 확보와 고객이 만족하는 의료의 질 향상만이 경쟁적 우위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목표로 하는 확고한 비전과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업영역의 선택과 집중, 의료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의료의 질 향상과 효율성 증대, 병원정보화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병원을 이루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원활한 역할 수행에 필수조건인 권한이양, 동기부여, 교육, 의사전달과정의 투명성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검사에 있어 시시비비가 없는 "환자들이 믿어주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재 : 오혜영